

2025  
PLATFORM  
OPEN STUDIO

20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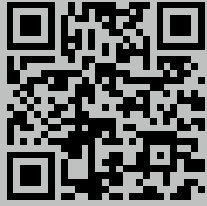


OP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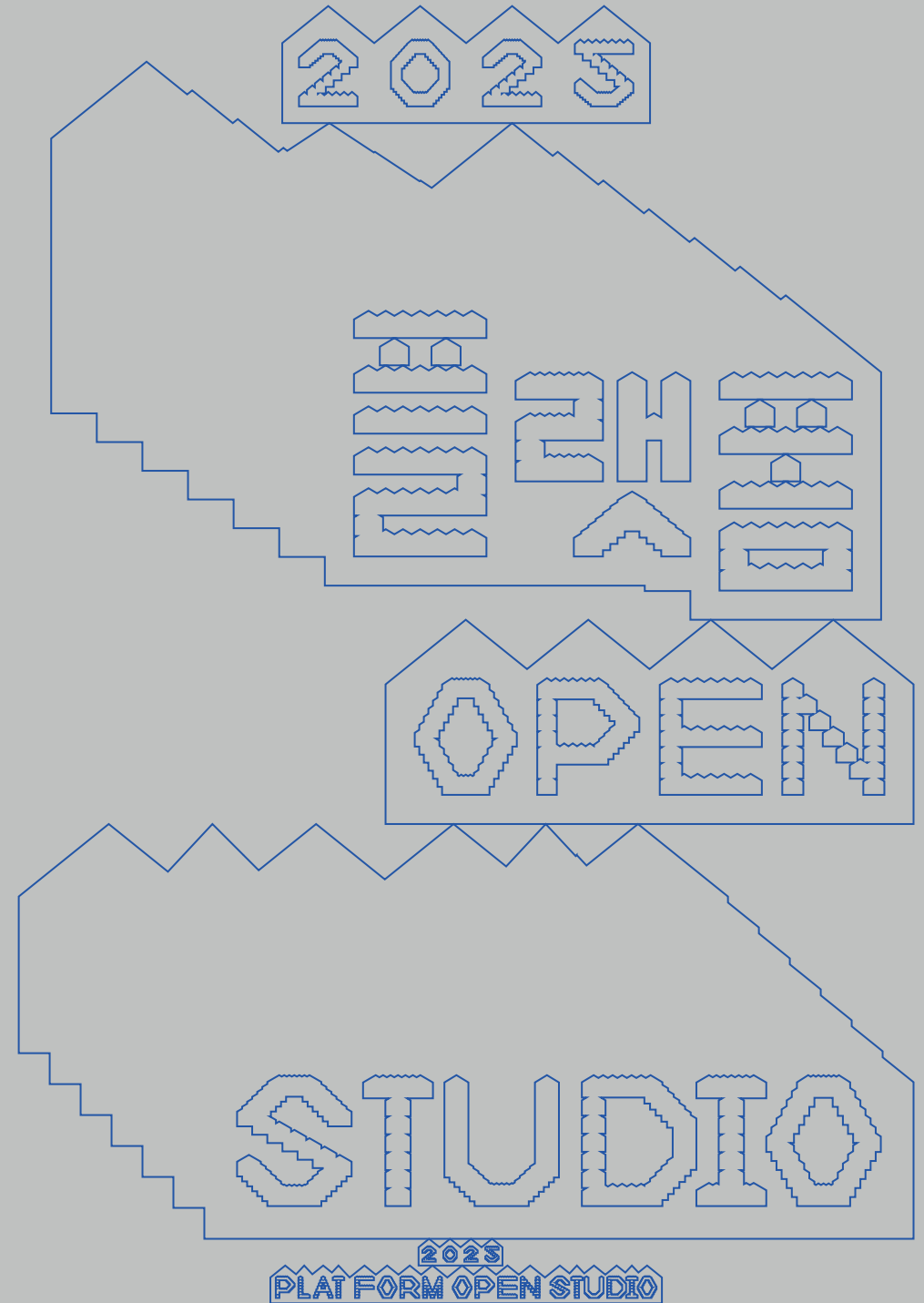


2025  
PLATFORM OPEN STUDIO

2025. 10. 24. - 10. 26.  
인천아트플랫폼 드림 및 중앙광장



2025  
PLATFORM  
OPENSTUDIO  
EN



**입주 예술가 Resident Artists**

**시각예술부문 Visual Arts**

- 강지웅 KANG Jioong
- 권세진 KWON Sejin
- 김영경 Young K.KIM
- 김영미 KIM Youngmi
- 엄기성 EUM Kixung
- 원나래 WON Narae
- 이소영 LEE Soyoung
- 최준영 CHOI Junyoung
- 치명타 Critical Hit

**다원예술부문 Interdisciplinary Arts**

- 정찬일 JUNG Chanil

**국제교류부문 International Exchange**

- 쉬성카이 HSU ShengKai

## INCHEON ART PLATFOR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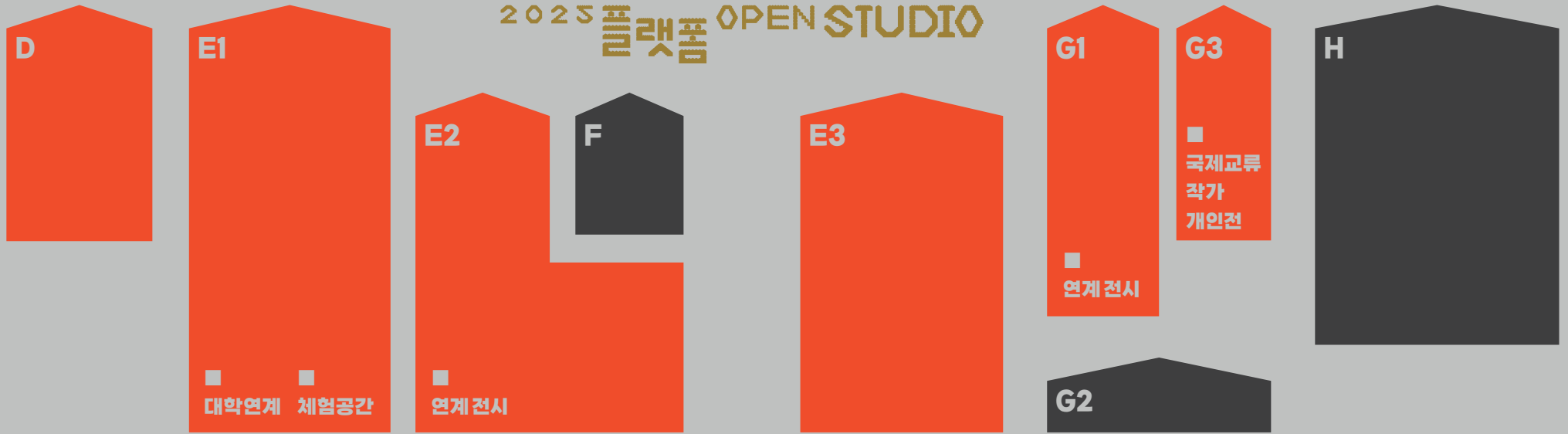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은 2009년부터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예술가와 연구자를 공모로 선발하여, 창작과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창작공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술가 간 교류와 협업,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 및 비평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 창작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장르와 매체를 넘나드는 실험적 예술 활동을 꾸준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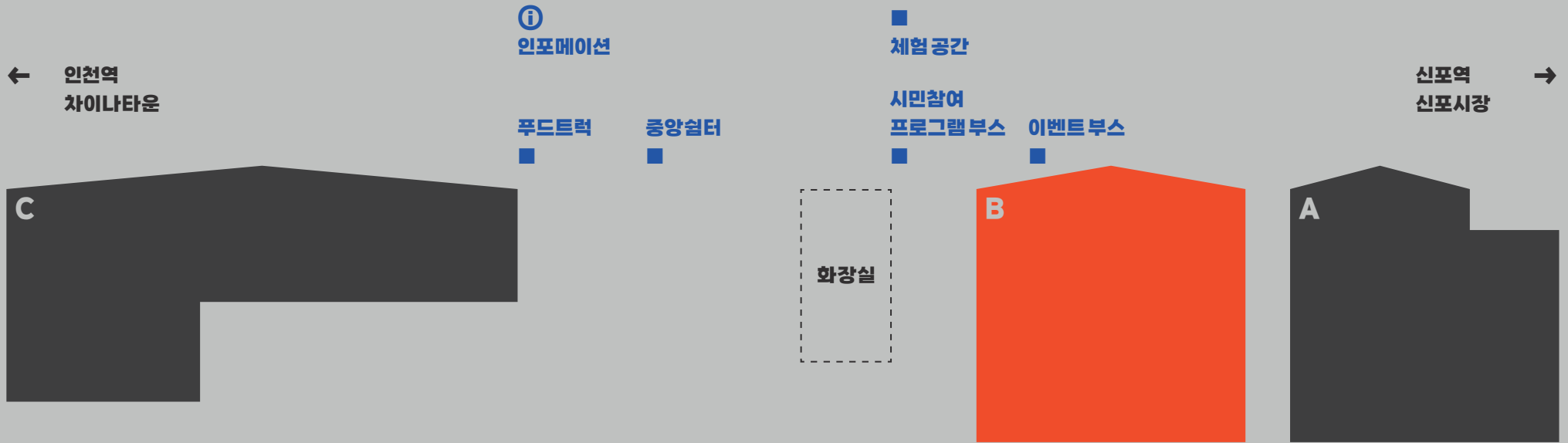
인천아트플랫폼은 10월 24일(금)부터 10월 26일(일)까지, 3일간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를 개최합니다. 2025년 <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에 선정된 10인의 입주작가와 국제교류작가(대만) 1인의 스튜디오를 시민에게 개방하여, 그간의 창작 과정과 결과물을 선보입니다. 오픈스튜디오 기간 동안 입주작가들은 각 스튜디오에 상주하며, 자신의 작업과 작업 세계를 직접 소개하는 아티스트 런 스페이스(Artist-run-space) 형식으로 공간을 운영합니다. 관람객들은 작가의 신작뿐 아니라 아직 공개되지 않은 미발표작, 창작의 과정, 작업의 흔적 등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 선정자인 차기울 작가의 스튜디오와 대학 연계 프로젝트로 기획된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의 전시를 함께 관람할 수 있습니다.

IAP MAP

2023 플랫폼 OPEN STUDIO



공간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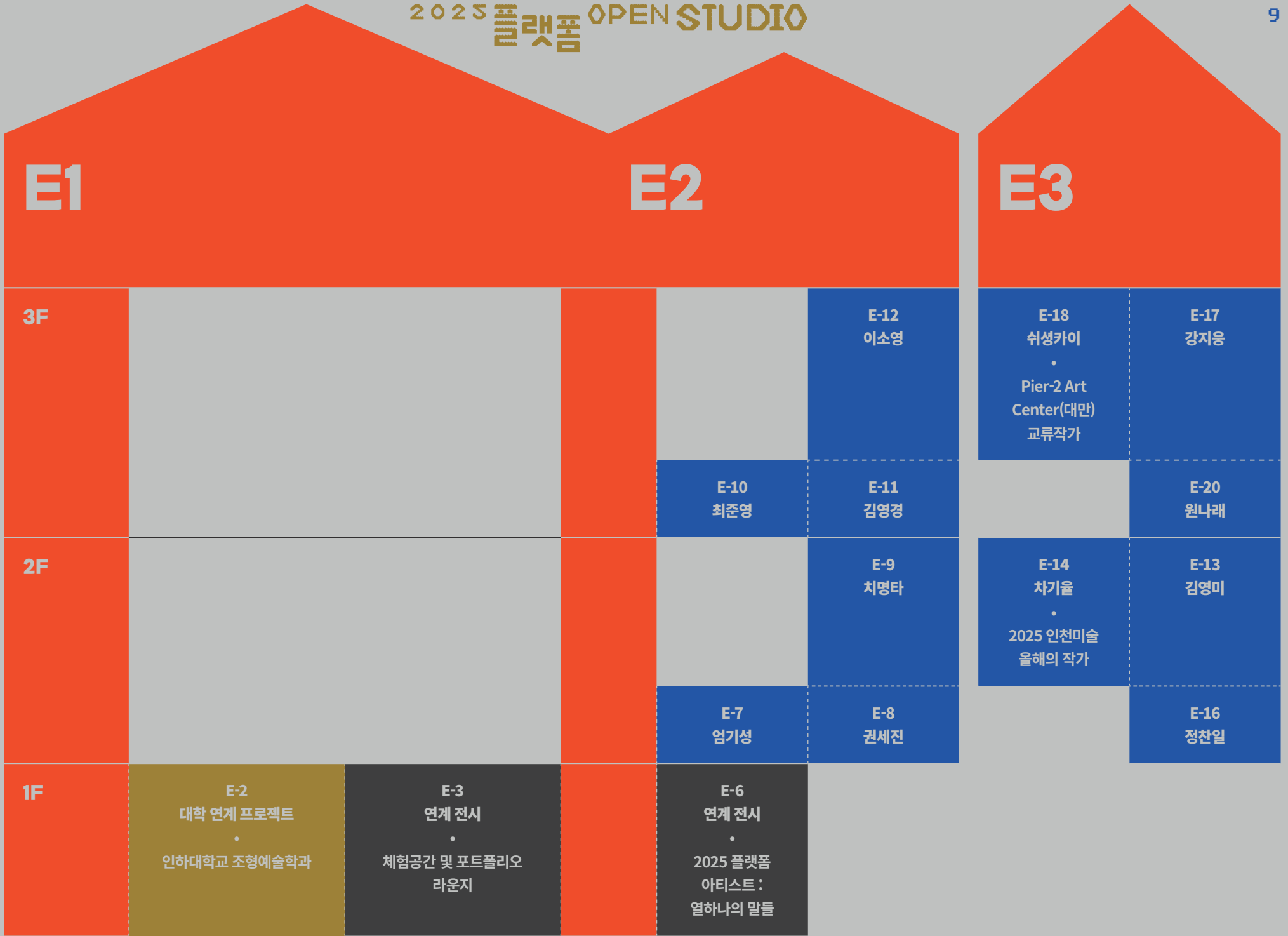
SPACE INFO

- |                                  |                                    |                                   |                      |
|----------------------------------|------------------------------------|-----------------------------------|----------------------|
| <b>A</b> 인천생활문화센터                | <b>B</b> 전시장1                      | <b>E1</b> 아티스트 스튜디오, 전시장 2        | <b>G2</b> 공동 작업실     |
| <b>1F</b> 교육실<br>갤러리 디딤<br>모임방 등 | <b>C</b> 공연장                       | <b>E3</b> 아티스트 스튜디오<br>프로젝트 스페이스3 | <b>G3</b> 프로젝트 스페이스2 |
| <b>2F</b>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사무실          | <b>D</b> IAP 아카이브<br>인천아트플랫폼 시설사무실 | <b>F</b> 게스트 레지던스                 | <b>H</b> 인천생활문화센터    |
|                                  | <b>E1~3</b> 아티스트 스튜디오              | <b>G1</b> 프로젝트 스페이스1              |                      |

IAP MAP

스튜디오 맵

STUDIO MAP



10.24.FRI

12:00-19: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E	스튜디오		입주 예술가 스튜디오 개방							
	E-2		대학 연계 프로젝트							
	E-3		연계 전시 체험 공간							
	E-6		IAP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연계전시							
G	G1		《2025 플랫폼 아티스트 : 열하나의 말들》							
	G3		국제교류작가 결과 보고 전시 《Resonance Revealed by The Ebbing Tide》							
B	전시장1		IAP 기획전시 《틸팅 그라운드》							
D	IAP 아카이브		아카이브 자료실							
중앙광장			[상설체험] 인천 탁본 구락부, 수제비 종이학 접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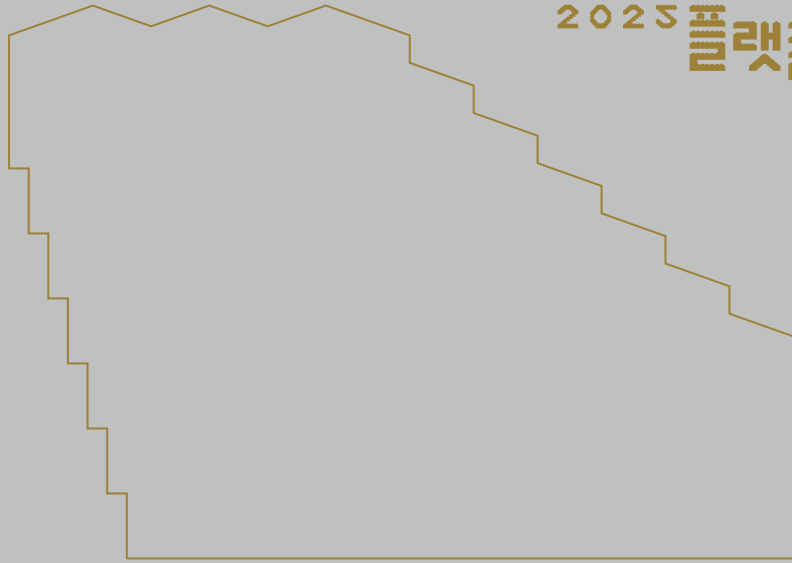
10.25.SAT - 10.26.SUN

12:00-18:00

		11:00	12:00	13:00	14:00	15:00	16:00	17:00	18:00	19:00
E	스튜디오		입주 예술가 스튜디오 개방							
	E-2		대학 연계 프로젝트							
	E-3		연계 전시 체험 공간							
	E-6		IAP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연계전시							
G	G1		《2025 플랫폼 아티스트 : 열하나의 말들》							
	G3		국제교류작가 결과 보고 전시 《Resonance Revealed by The Ebbing Tide》							
B	전시장1		IAP 기획전시 《틸팅 그라운드》							
D	IAP 아카이브		아카이브 자료실							
중앙광장			[상설체험] 인천 탁본 구락부, 수제비 종이학 접기							

2025

2025 플랫폼 OPEN STUDIO



E-7	엄기성	EUM Kixung
E-8	권세진	KWON Sejin
E-9	치명타	Critical Hit
E-10	최준영	CHOI Junyoung
E-11	김영경	Young K. Kim
E-12	이소영	LEE Soyoung
E-13	김영미	KIM Youngmi
E-16	정찬일	JUNG Chanil
E-17	강지웅	KANG Jioong
E-18	쉬성카이	HSU ShengKai
E-20	원나래	WON Narae

+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에는 '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차기울 작가의 작업실을 공개합니다. 차기울 작가는 지난 6월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이후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에 입주하여, 2026년 개인전을 위한 창작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의 작업 과정과 전시 준비의 현장을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엄기성  
EUM Kixung

탁본 낚시터  
Rubbing Fishing Spot

E-7

엄기성은 개인의 기억과 감각이 물리적 경계와 충돌할 때 드러나는 내면의 상태를 조형 언어로 번역해왔다. 도시가 재개발과 철거, 관광화와 임시 점유 등으로 끊임없이 변형되는 과정 속에서 그는 사물과 장소, 감각의 편린들이 남긴 흔적과 소멸을 포착하고, 이를 해체와 복원의 과정을 거쳐 다시 형상화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탁본 낚시터>에서 작가는 인천의 임시 공간들을 탐색하며, 그곳에 축적된 시간의 잔상과 흔적의 부유물을 탁본 방식으로 채집하여 보여준다.

도시 속에서 탁본을 통해 흔적을 발굴하는 과정은 마치 망망대해의 바다에 투망을 던져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를 건져 올리는 행위와 닮아있다. 작가는 작업실 전체를 실제 어망으로 덮어 내부를 하나의 '시간의 그물망'으로 전환한다. 관람객은 이 그물망 안으로 들어가 도시 속에서 발굴된 탁본 조각을 마치 시간의 물결에 걸린 물고기처럼 인식하게 된다.



탁본 방식으로 흔적의 빈 틈을 메꾸며

<경계를 넘어>, 2025, 싱글채널 16:9, 5분 7초.  
 Crossing the border, 2025, single channel 16:9, 5min 7sec.

**권세진**  
**KWON Sejin**

권세진은 전통 재료인 한지와 먹을 바탕으로 디지털 이미지와 결합하며 회화적 표현의 확장 가능성을 탐구해 왔다. 직접 촬영한 자연의 이미지를 해체하고 조합하는 과정을 통해 시간의 흐름과 변화의 흔적을 드러내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는 《고요한 풍경》이라는 명제 아래 수묵드로잉 작업을 선보인다. 바다의 운슬이나 빗방울이 수면 위로 퍼져 나가는 순간의 장면을 수묵의 농담과 번짐으로 포착하고, 여백을 통해 빛을 가시화하여 먹과 한지에 담아낸다. 이러한 일상의 풍경은 머리 속 생각들을 비우고, 멍하니 바라보며 휴식하는 장면이자 내면을 비추는 감각적 경험이기도 하다.

작가의 스튜디오 벽면에 띄워 설치된 한지 작업과 천장에 매달린 드로잉 작업은 분절과 재구성의 조형 언어를 공간으로 확장시키며, 관람자에게 다층적 감각을 열어주고 분주한 일상 속 찰나의 고요를 경험하게 한다.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5)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of 2025 Platform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25).

**치명타**  
**Critical Hit**

치명타는 기울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소수자들이 어떻게 누락되고 배제되는지를 추적하는 회화와 영상 작업을 선보여왔다. 작가는 현장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소수자 인권 행동에 참여하는 시각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갈 생각이 없다.》는 고전 유머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을 차용하여 풍자한다. “냉장고 문을 연다 → 코끼리를 넣는다 → 문을 닫는다”는 해결법은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고, 불가능을 가능한 것처럼 위장한다. 이는 코로나19를 빌미로 노동자를 해고한 세종호텔의 “노조를 와해하고 싶다 → 경영 악화를 ‘만든다’ → 해고한다”와 닮아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는 세종호텔에서 그린 현장 드로잉 십여 점과 인천에서 작업한 회화 소량을 선보인다. 뜨거운 날씨와 물리적 제약으로 인한 ‘미완성’ 현장 드로잉은 작가의 연대 방식에 맞춘 ‘비완결’ 형식으로 제시된다. 덧붙여 소수자의 주거 공간을 정리하는 차기 프로젝트를 파일럿 형태로 소개한다.

다시 돌아가서,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을까?  
 먼저 코끼리 생각을 들어보자.



《비완결 드로잉》, 2025, 종이 위에 수채 펜 아크릴, 각 28×35cm.  
 Non-complete Drawing, 2025, watercolor pen acrylic on paper, each 28×35cm.

최준영  
CHOI Junyoung

최준영은 도시 풍경 속에서 발견한 불편하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장면을 '가려운 순간'이라는 은유로 설명하고, 이를 회화로 옮긴다. 일상 속에서 마주한 장면은 시야를 찌르듯 다가오며 기억되고, 작가는 이를 반복적으로 떠올리며 기억과 회화의 시간이 겹쳐지는 화면을 그린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인천·합판·재활용·회화·매립지》에는 기존 작업과 더불어, 이전 전시에서 사용했던 합판을 재활용한 신작을 선보인다. 작가는 완성된 기존 작품을 다시 바라보며 연필로 드로잉하고, 그 위에 색을 덧입히며 화면을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입주 기간 동안 경험한 인천의 풍경을 중첩시키며, 합판 위에 새로운 장면을 만들어 낸다. 이를 통해 작가는 풍경을 경험했던 과거의 시간과 그림을 그리는 현재의 시간이 만나는 순간을 탐구하고자 한다.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5)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of 2025 Platform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25).

김영경  
Young K. Kim

김영경은 사진을 매개로 땅과 이미지, 삶의 두 가지 '지지체(ground)'를 탐구한다. 작가에게 재현 기술의 발전은 단순한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또 다른 '땅'을 형성하는 과정이다. 장기 프로젝트 <흐르는 땅>을 통해 산업화 이후와 데이터 시대를 가로지르며 전환에 내재한 감각을 사유하고, 사진의 새로운 확장으로서 '레조그래피(Lazography)'라는 시각적 형식을 구축한다.

《인천 중구 제물량로218 E-11 발굴조사현황》은 신작에서부터 초기 작업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을 따라, 작가의 작업이 축적해 온 층위를 드러낸다. 작가는 발굴의 개념을 작품뿐 아니라 오픈스튜디오의 구조에도 적용한다. 발굴은 과거를 캐내고 현실에 접촉시키는 재매개의 행위이지만, 그 순간 열리는 땅에서는 미래가 솟아오른다. 이곳에서 관객은 작가의 작업을 출토하는 능동적 발굴자가 되어, 작가의 시간을 탐험하고 자신만의 해석으로 재구성한다.



《Karts MFA Show》, (본관 갤러리, 서울, 2025)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Karts MFA Show, (Main Gallery, Seoul, 2025).

이소영  
LEE Soyoung

이소영은 몸과 공간, 장소와 정체성에 대한 사유를 바탕으로 언제든 흔들리고 부서질 수 있는 공간을 탐구해 왔다. 작가가 주로 다루는 휴은 공간 그 자체이자 순환하는 물질로서, 한 존재가 끊임없이 변주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예술 언어로 작동한다. 작가는 장소 기반 프로젝트와 리서치 아카이빙 등 다양한 방식의 실험을 바탕으로 추상 조형과 설치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임시공간》에서 작가는 도시 속에서 수집한 건축적 조각들이나 사물의 이미지를 휴은으로 치환하고, 이를 부수어 다시 점토로 되돌리는 과정을 보여준다. 공간 또는 사물을 '짓는' 수행적 과정을 역추적해 보며, 형상 이전의 물질성과 역동성을 기록한 <부서지기 쉬운 도시> 시리즈의 수조 설치 작업과 영상 작업을 함께 선보인다. 또한 작품의 기반이 되는 상징들과 리서치 아카이빙을 모종의 서사로 재구성한 다큐멘터리의 제작 과정 일부를 공개한다.



《짓기 그리고 짓기》, (창작스튜디오 131, 울산, 2023) 전시 전경.  
Exhibition view of *Constructing and Re-constructing*, (Creative Studio 131, Ulsan, 2023).

김영미  
KIM Youngmi

김영미는 반복적인 몸짓 속에 드러나는 간절함과 무력함에 주목한다. 작가는 일상적인 몸짓이나 사회적 규율이 스며든 동작을 관찰하고, 그 반복 속에서 발생하는 감정과 태도를 영상과 설치 작업으로 풀어낸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수제비 종이학 - 실패의 반복》은 반복과 균형, 실패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일상의 재료와 동작이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려는 시도다.

수제비 반죽은 쉽게 찢어지기 때문에 종이학을 접기에는 불완전한 재료로, 결국 실패를 안고 있는 조각이다. 그러나 수제비와 종이학은 모두 영원의 마음을 담은 반복의 소재로서 연결된다.

작가의 스튜디오에는 바닥의 <수제비 종이학> 조각과 함께 두 개의 영상이 벽면에 설치된다. 하나는 골키퍼의 움직임이다. 예측할 수 없는 방향을 상상하며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몸짓과 중심을 잃지 않기 위해 균형을 잡는 몸에 주목한다. 다른 하나는 김치전을 뒤집는 영상이다. 팬 위에서 무게중심과 타이밍을 조절하며 뒤집기를 반복하는 일상의 동작은 골키퍼의 움직임과 겹쳐지며, 전혀 달라 보이는 동작 속 느껴지는 감정의 연결 지점을 암시한다.



<실패의 형상>, 2025, 제스모나이트, 60×60×5cm.  
*The Shape of Failure*, 2025, jesmonite, 60×60×5cm.

정찬일  
JUNG Chanil

정찬일은 전시와 공연 사이에 위치하며, 프로젝트에 따른 적합한 표현 방식과 매체로 작업한다. 특히 일상 속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과 긴장, 시선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인식하며 신체를 해체하고 재구성해 새로운 움직임을 탐구한다. 신체는 정보와 감정, 규범과 기억, 불안과 믿음이 얽혀 있는 복잡한 매체로, 신체를 통해 세계를 다시 읽어내고 새로운 감각의 질서를 모색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서 작가는, 제도적 시선에 의해 가려진 신체와 그 흔적에 대한 실험 과정을 공유한다. 이 과정은 사라지거나 부재한 몸을 쫓는 것이 아닌, 지워진 흔적 속에서 재구성되는 신체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다. 작가는 말해지지 않고 표기되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진동과 이미지 속에서 살아남는 방식을 찾는 중이다. 이는 사라진 것들의 기록이자 불안정한 몸으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생존 방식이 된다.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5)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of 2025 Platform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25).

강지웅  
KANG Jioong

강지웅은 주로 사진 매체를 다룬다. 직접 찍거나 수집한 이미지를 인화해 재료로 삼으며, 이를 물리적으로 손상시키는 방식으로 작업을 이어왔다. 작가는 사진이 손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시차에 주목해 오고 있다.

이번 오픈스튜디오에는 《올바른 쪽이 위로 rightside up》라는 제목으로 약 15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right place, wrong time〉(2025) 구작을 뒤집는다.

작가의 집을 찍은 사진 여러장이 느슨하게 연결된 채, 약 두 달간 수면 위를 떠다니며 손상됐던 작업은, 애초에 앞면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출력됐다. 두 달간 부패하는 물 속에서 불어나고 오염되며 엉겨붙은 미생물의 흔적은 사진의 뒷면에 또 다른 상을 만들어냈다. 사진에 출력된 상의 색과 명도에 따라 앞면의 상을 어렵פות이 드러내는 뒷면의 상은, 일면 네거티브 필름을 연상케한다. 해당 작업물은 작가의 스튜디오를 가득 메우며 사진의 두께와 시간의 흔적을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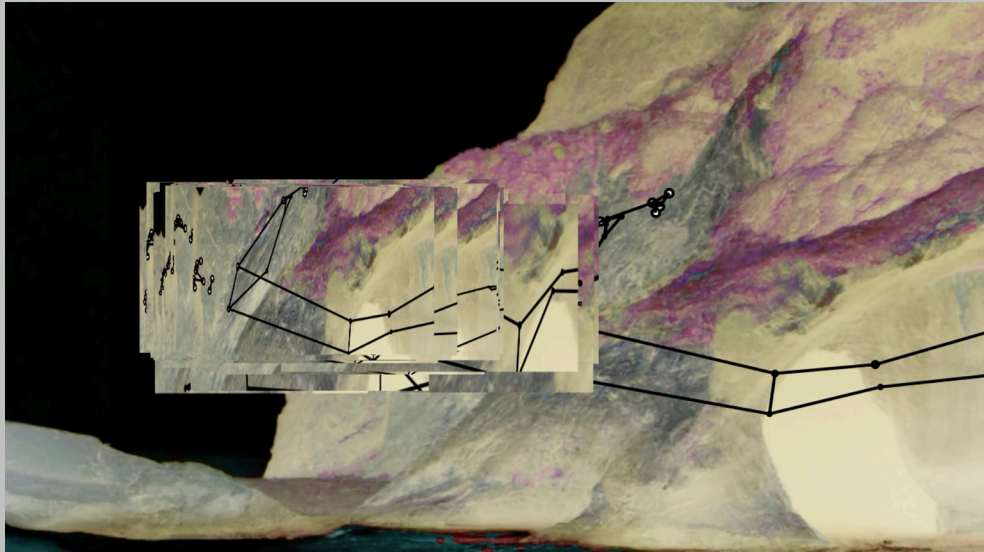


〈right place, wrong time〉, 2025, 디지털피그먼트 프린트, 래커, 가변 크기.  
right place, wrong time, 2025, digital pigment print, lacquer, dimensions variable.

쉬성카이  
HSU ShengKai

쉬성카이는 타이베이에서 활동하는 뉴미디어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이다. 작가는 기술, 개인, 그리고 공동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역학을 탐구한다. 그는 디지털이미지, 3D 환경과 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기계가 인간의 감정을 어떻게 인지하고, 시뮬레이션하며, 재구성하는지를 서사적 공간 안에서 시각화한다.

이번 오픈스튜디오 《Mechanism behind the tides》(조수의 메커니즘)는, G3 전시장에서 진행 중인 개인전 《Resonance revealed by the ebbing tide》(떨물에 드러난 울림)과 연결된다. 여기서, ‘메커니즘’이란 단순히 인공 파도풀의 기계장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작업 전반을 아우르는 개념적 틀과 인터랙티브 기술을 의미한다. 해당 작업물은 이미지 인식 실험, 드로잉과 스케치, 스토리보드 등 리서치 자료 일부와 함께 공개되어, 작가의 창작 과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If Rock Can Dance>, 2024, 시각 퍼포먼스.  
If Rock Can Dance, 2024, visual performance.

원나래  
WON Narae

원나래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소비되고 재생산되는 식물 이미지와 여성 이미지 사이의 구조적 유사성을 탐구한다. 특히 식물이 SNS나 온라인 플랫폼에서 어떻게 연출되고 공유되는지를 탐색하며, 그 과정이 여성 이미지가 형성되고 소비되는 방식과 어떻게 닮아있는지에 주목한다.

작가는 이번 오픈 스튜디오 《Take your shot, Photoshoot》에서 작업실의 세 벽면을 ① 핸드폰의 사진폴더, ② SNS 피드, ③ 웨이팅존으로 연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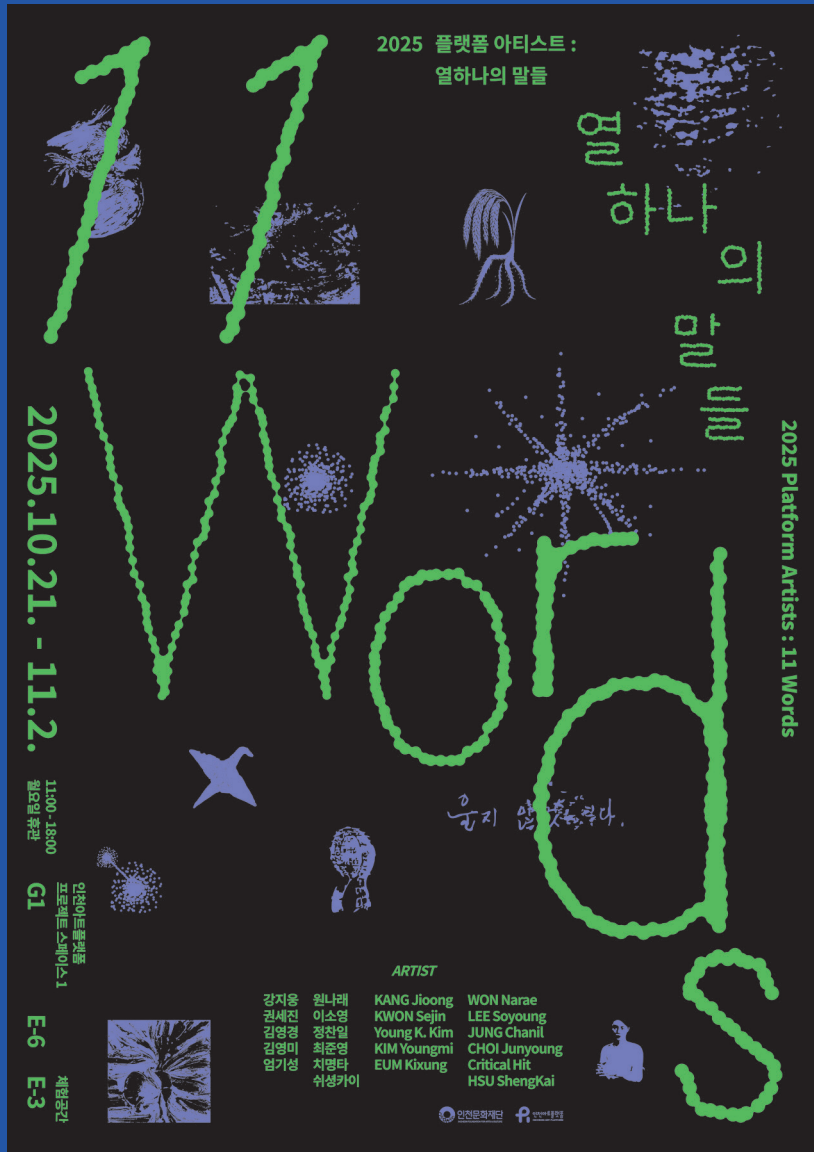
벽①은 ‘잘 나온 한 장’을 위해 찍힌 수십 장의 사진들로 구성된 사진폴더를, 벽②는 사용자의 미적 욕망이 반영된 ‘구미진 식물’ 이미지들이 조합된 SNS 피드로 재현된다. 마지막 벽③은 아직 선택되지 못한 이미지들이 대기하는 웨이팅존으로 구성된다.

이를 통해 작가는 디지털 환경 속에서 이미지가 생성되고 선별되며 이상화되는 과정을 공간적으로 시각화하고자 한다.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25) 설치 전경.  
Installation view of 2025 Platform Open Studio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2025).

연계 전시



2025 플랫폼 아티스트 : 열하나의 말들

인천아트플랫폼은 플랫폼 오픈스튜디오의 일환으로, 입주 작가 11인이 모두 참여하는 연계 전시 《2025 플랫폼 아티스트: 열하나의 말들》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회화, 사진, 조각,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아우르는 입주 작가 11인의 작품 세계를 한자리에 선보입니다. 전시장에는 각 작가들이 전하는 ‘말들’이 작품과 함께 설치되며, 열하나의 말들은 서로의 장면을 연결하는 지도가 되어 전시 공간을 구성합니다. 관람객은 작품을 감상하며 떠오르는 단어들을 수집하고, 체험 공간에서 전시와 오픈스튜디오에서 얻은 인상이나 생각을 짧은 글로 남겨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이 경험이, 또 하나의 장면으로 오래 기억되길 바랍니다.

전시기간 2025. 10. 21.(화) - 11. 2.(일),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인천아트플랫폼 프로젝트  
스페이스 1(G1), E-6,  
E-3(참여공간)

참여작가 강지웅, 권세진, 김영경, 김영미,  
엄기성, 원나래, 이소영, 정찬일,  
최준영, 치명타, 쉬성카이

관람시간 11:00 -18:00  
단, 10/24(금) 오픈스튜디오  
개막일은 11:00-19:00 운영

관람료 무료



## 인천 탁본 구락부

인천 탁본 구락부는 인천아트플랫폼 곳곳을 탐험하며 탁본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엄기성 작가는 과거 체신부(우체국)가 관리하던 통신 맨홀을 뜻하는 ‘체’ 글자를 포함하여, 장소의 역사와 특징을 드러내는 글자, 문양 등을 발견하고, 이를 탁본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참여자는 고무찰흙을 사용하여 작가가 발견한 다섯 곳의 장소를 찾아 직접 탁본을 체험하고, 완성본을 마그네티로 만들어 소장할 수 있습니다.

진행일정 2025. 10. 24.(금) - 10. 26.(일)  
12-6pm  
진행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기획 엄기성

## 수제비 종이학 접기

‘수제비 종이학 접기’는 밀가루 반죽과 만두피를 사용해 종이학을 접어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입니다. 일상의 반복적인 몸짓을 탐구하고 이를 작업으로 풀어내는 김영미 작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수제비를 뜬 손’과 ‘종이학을 접는 손’ 사이에서 ‘염원’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참여자는 쉽게 찢어지는 반죽으로 종이학을 접어보며, 손끝을 통해 실패와 염원을 마주하는 새로운 감각을 경험하게 됩니다.

진행일정 2025. 10. 24.(금) - 10. 26.(일),  
12-6pm  
진행장소 인천아트플랫폼 중앙광장  
기획 김영미

## 스튜디오 MF Lv.2

‘셋방 살러 왔습니다’ 프로젝트는 인천아트플랫폼 대학 연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 대학생 및 졸업생 일원이 참여한다. 이들이 머무는 스튜디오 MF Lv.2(E-2)는 기획자 김서정, 어시스턴트 백채연, 작가 김준서, 남형조, 모스초이, 소성준, 유재윤, 전채영으로 구성된다.

익숙한 학교의 울타리를 벗어나 외부로 첫발을 내딛는 작가들의 현 상황은 계약만료를 앞둔 세입자의 모습과 같이 느껴진다. 교내 작업실을 사용하던 작가들은 다음 거처를 모색하기 전 인천아트플랫폼 스튜디오라는 임시 거처 즉, ‘단기임대 방’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단기임대 방을 얻게 된 작가들은 세입자로서 이 공간에 잠시 짐을 풀어둔다. (글/ 김서정)

## 스튜디오 MF Lv.2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교내 작업실의 이름은 스튜디오 MF이다. MF는 Master of Fine art로, 조형예술학과와 대학원 작업실을 의미한다. 이번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의 공간은 스튜디오 MF에서 한 단계 확장된 버전이라는 의미를 담아 스튜디오 MF Lv.2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는 하나의 챕터를 넘어 다음 레벨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 이벤트 EVENT

오픈스튜디오 기간동안 SNS에 ‘단기임대’ 전시의 인증샷을 업로드하면 <스튜디오 MF Lv.2> 타이틀이 새겨진 키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열쇠에 거는 작은 액세서리인 키링은 전시 공간에 참여하는 열쇠이자 집들이 손님이 받는 답례품이 됩니다. 이 오브제를 통해 관람객들이 전시의 경험을 기억하고 공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IAP 스티커 투어

이번 오픈스튜디오에는 2025년 입주 작가들의 스튜디오 개방과 더불어 연계 전시와 대학 연계 프로젝트,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합니다. 다채로운 예술적 체험을 통해 예술과 가까워지는 특별한 시간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기간** 2025. 10. 24.(금) - 10. 26.(일), 12-6pm

- 참여방법**
- ① 스튜디오 12개실을 방문하여 작품을 관람한다.
  - ② 스튜디오별로 비치된 스티커를 [IAP 스티커 투어] 맵에 부착한다.
  - ③ 이벤트 부스에서 완성된 스티커 맵을 보여준 뒤 기념품을 받는다.

### IAP 럭키드로우

[IAP 스티커 투어]를 완료한 후 《2025 플랫폼 아티스트 : 열하나의 말들》 연계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도 참여해 보세요. 피크닉 매트와 에코백 등 기념품을 뽑을 수 있는 ‘럭키 드로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진행기간** 2025. 10. 24.(금) - 10. 26.(일), 12-6pm

- 참여방법**
- ① [IAP 스티커 투어] 완료 후 연계 전시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IAP 스티커 투어] 맵에 스티커를 부착한다
  - ② 이벤트 부스에서 스티커 맵 인증 후 ‘럭키드로우’에 참여한다.
- \* 기념품은 일별 선착순 제공으로, 소진 시 수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IAP 푸드트럭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를 관람하며 찍은 인증샷을 SNS 또는 네이버 플레이스에 해시태그와 함께 남겨주세요. 진행요원의 확인 후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시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게 푸드트럭 쿠폰을 증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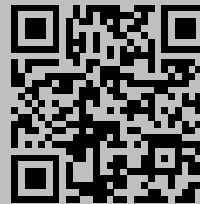
**진행기간** 2025. 10. 24.(금) - 10. 26.(일), 1-5pm

- 참여방법**
- ① 오픈스튜디오를 관람하며 찍은 사진을 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한다.
  - ② 이벤트 부스에서 인증샷을 보여준 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다.

#인천아트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작가명 #IAP #OpenStudio

## IAP 스티커 투어

<b>E-7</b> 엄기성 EUM Kixung	<b>E-8</b> 권세진 KWON Sejin	<b>E-9</b> 치명타 Critical Hit	<b>E-10</b> 최준영 CHOI Junyoung
<b>E-11</b> 김영경 Young K. Kim	<b>E-12</b> 이소영 LEE Soyung	<b>E-13</b> 김영미 KIM Youngmi	<b>E-16</b> 정찬일 JUNG Chanil
<b>E-17</b> 강지웅 KANG Jioong	<b>E-18</b> 쉬생카이 HSU ShengKai	<b>E-20</b> 원나래 WON Narae	<b>E-2</b> 대학 연계 프로젝트
<b>G1, E-6, E-3</b> 연계 전시 2025 플랫폼 아티스트 : 열하나의 말들	<b>중앙광장</b> 시민참여 프로그램	• 기념품 교환	• 럭키드로우 참여



2025  
PLATFORM  
OPEN STUDIO  
EN

<b>인천아트플랫폼</b>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2025. 10. 24.(금) - 10. 26.(일) 인천아트플랫폼 E동 및 중앙광장
<b>입주작가</b>	<b>인천 청년예술가 스튜디오 지원사업</b> 강지웅, 권세진, 김영경, 김영미, 엄기성, 원나래, 이소영, 정찬일, 최준영, 치명타  <b>국제교류작가(대만)</b> 쉬성카이  <b>2025 인천미술 올해의 작가</b> 차기울
<b>대학 연계 프로젝트</b>	<b>인하대학교 조형예술학과</b>
<b>인천아트플랫폼</b>	<b>예술감독</b> 변순영  <b>운영팀장</b> 이영리  <b>운영팀</b> 오병석, 조은주, 박성훈, 이은진, 이채리, 김경민, 황소영, 이태현, 민등인, 허예린, 오겸아  <b>시설</b> 이영재, 서승택  <b>보안</b> 최명배, 임영균, 최영권  <b>미화</b> 박주희, 엄익진, 이상수

인천아트플랫폼  
22314 인천광역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tel. 82 (0)32.760.1000  
fax. 82 (0)32.760.1010

© 2025 인천아트플랫폼  
수록된 글과 도판에 대한 저작권은  
각 저작권자에게 있으며, 저작권자와  
인천아트플랫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025 플랫폼 오픈스튜디오

총괄

인천아트플랫폼 예술감독 변순영  
인천아트플랫폼 운영팀장 이영리

기획 및 운영

이태현, 황소영, 허예린

그래픽 디자인

odt

공간 디자인

금손건축

번역

더라이터스

인쇄

아이디디자인

주최/주관

인천문화재단  
인천아트플랫폼

작가교환 프로그램  
프리맨틀 아트센터, 호주  
피어 투 아트센터, 대만

International Exchange Program  
Fremantle Arts Centre, Australia  
Pier-2 Art Center, Taiwan



국제레지던시협회 회원  
레스 아티스

Members of Res Artis  
Res Artis

